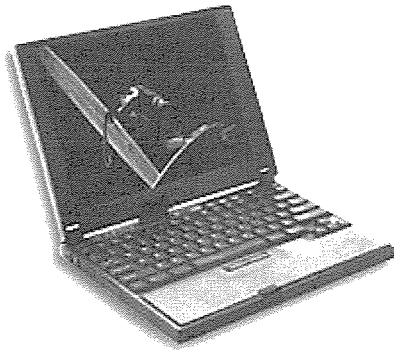




노트북PC 슬림화 경쟁 기열



▲ 두께가 31mm에 불과한 IBM의 '싱크패드 560' 노트북PC.

노트북PC 업체들의 제품 초경량 슬림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도시바, 컴팩 컴퓨터, 소니, 샤프 등 세계 주요 노트북 업체들은 전세계적으로 초경량 슬림형 제품의 수요가 붐을 이룸에 따라 앞다퉀 신제품을 발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슬림형 노트북PC는 두께가 1인치 미만으로 무게도 3~4파운드에 불과해 휴대기능을 극대화한 제품. IBM의 '싱크패드560'을 비롯, 소니의 '바이오', 휴렛 팩커드(HP)와 미쓰비시가 공동개발, 판매하고 있는 '서전'과 '페디온'이 대표적이다. 도시바는 최근 세계 최경량 슬림형 노트북PC인 '다이나북SS 프로티지'를 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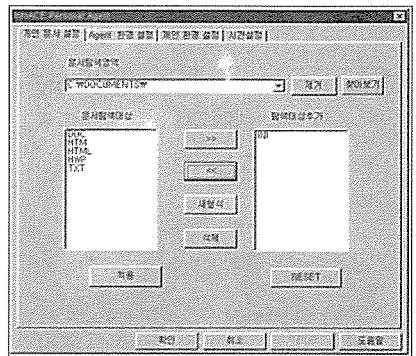
이 제품은 두께 0.79인치에 무게도 2.6파운드(1.19kg)에 불과하며 인텔 펜티엄 II 266MHz 프로세서와 4.3GB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내장했다. 가격은 2천2백56달러이다. 도시바는 특히 일본 내에서 슬림형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전체 자사 PC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늘려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1/4분기 말까지 해외판매도 계획하고 있다. 샤프와 컴팩은 9월중 첫 초경량 슬림형 노트북 제품을 내놓고 이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샤프의 '액티우스 A100'은 무게가 3파운드 미만으로 233MHz인텔 펜티엄 멀티미디어 확장(MMX) 칩과 3.2GB HDD, 64MB 메모리, 11.3인치 LCD와 모뎀을 갖추고 있다. 가격은 2천4백~2천7백달러 예정하고 있다. 컴팩 역시 현재 자사 제품중 가장 가벼운 모델인 5.2파운드의 '아마다 4200'보다 더 작고 가벼운 4파운드 미만의 펜티엄II '아마다' 신모델을 발표할 계획이다.

컴팩은 구체적인 제품 사양과 가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IBM의 '싱크패드 560'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부터 슬림형 노트북을 판매하고 있는 소니도 최근 신제품 '바이오 505'를 일본에서 출시했다. 소니는 이 제품의 저장용량을 기존 '바이오 505G' 모델의 두배인 4.3GB로 크게 늘렸다. 슬림형 노트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키보드 크기 도 작아지고 있다. 샤프의 '액티우스'

는 표준 노트북PC 키보드의 89% 정도인 17mm 키보드를 채용하고 있다. 소니의 '바이오 505'도 일반 키보드의 90% 크기에 불과하다. HP는 '서버' 노트북에 일반 키보드보다 작은 키보드를 내장, 제품 두께를 줄였다.

개인용 문서검색 SW 등장



▲ 개인용 문서검색 소프트웨어인 '인포에이스 퍼스널 에이전트'의 환경설정 화면 모습.

PC 내에 존재하는 일반 문서는 물론 전자우편까지 검색할 수 있는 개인용 문서검색 소프트웨어가 등장했다.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 트리소프트가 개발한 '인포에이스 퍼스널 에이전트'는 PC에 흩어져 있는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준다. 문서 제목 뿐 아니라 파일형식, 변경일, 덧붙임말, 문서내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검색이 가능해 PC 내에 존재하는 많은 문서들을 일일이 열어 보지 않고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넷스케이프, 익스플로러, 유도라 등의 메일박스 안에 있는 전자우

편 내용과 첨부파일 정보까지 검색해 준다.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한 뒤 이 사이트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변화내용을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또 검색결과를 파일명, 크기, 최종변경일 등의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검색대상 문서는 한글, MS워드 등 각종 워드프로세서 문서, HTML 파일, 전자우편 및 사용자가 지정하는 형식의 문서 등이다. PC통신 공개자료실과 트리소프트 홈페이지(www.tree.co.kr)에서 이 제품의 시험판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데스크톱, 노트북PC 영역 구분 무너진다



▲ 기존 데스크톱에 비해 크기를 약 30% 줄인 삼성전자의 공간절약형 셀러론PC.

데스크톱PC와 노트북PC의 영역 구분이 무너진 '신개념' PC들이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최근 PC 기술 발전에 힘입어 데스크톱PC는 본체의 부피 및 크기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트북PC의 전유물이었던 박막 트랜지스터 액정표시 장치(TFT LCD) 모니터를 장착한 제품마저 등장, 지금까지 노트북의 고유분야로 여겨져온 '휴대성'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노트북도 관련

기술발전으로 고성능 제품이 등장해 데스크톱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대우통신은 지난달 말 노트북PC와 데스크톱PC의 장점을 혼합한 PC 2개 제품(모델명 CDN 510·CDN 500)을 발표했다. 이들은 데스크톱 본체에 그동안 노트북PC 모니터용으로 사용돼온 13.3인치(CDN 510)와 12.1인치(CDN 500) TFT LCD 모니터를 탑재했다. 이 제품은 인텔 펜티엄 II 233MHz CPU, 32MB의 주 메모리, 3GB의 HDD, 24배속 CD롬 드라이브를 갖추면서도 부피가 기존 데스크톱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초경량 초슬림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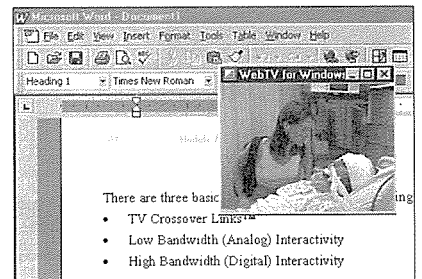
삼성전자는 지난달 초 기존 데스크톱에 비해 크기를 약 30% 줄인 공간절약형 셀러론PC(모델명 M4500 시리즈)를 출시했다. 이 회사는 내년 초에는 기존 제품에 비해 40% 가량 크기를 줄인 초슬림형 제품을 개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ATX 보드를 채택하고 새로운 PC 제조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크기를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특히 이들 제품이 노트북의 작업환경과 데스크톱의 성능이 요구되는 금융권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소형 컴퓨터 '마이더스'를 출시한 삼보컴퓨터는 올 하반기 기존 데스크톱PC에 비해 크기를 절반으로 줄인 소형 펜티엄 II 제품을 새로 개발해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삼보컴퓨터는 이를 위해 최근 이 제품에 필요한 주기판 개발에 착수했으며 소형 PC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우선 해외수출에 영업력을 집중하고 수출물량이 크게 늘어나 대량생산 체제

가 가능해질 경우 국내시장에 이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멀티캡도 지난달 5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그래픽카드와 사운드카드 등 기존 입출력(I/O)카드를 주기판에 장착해 기존 제품보다 크기를 3분의 1 가량 줄인 데스크톱PC를 발표했다.

윈도98 결함과 바이러스 발견



▲ 최근 잇달아 오류가 발견되고 있는 윈도98에서 프로그램을 작동시킨 모습.

미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새 PC운영체제 '윈도98'에서 결함이 잇달아 발견되고 이를 겨냥한 컴퓨터 바이러스도 나타나 컴퓨터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가장 먼저 발견된 결함은 '한글 윈도98'의 소비자 평가판(베타)을 이용하던 고객들이 정품으로 업그레이드(성능향상)할 때 PC가 일부 작동을 멈추는 것. 현재 국내 약 1천여명이 윈도98 평가판을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나타나면 컴퓨터 안의 자료가 전부 손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평가판을 전부 지운 뒤 정품을 설치하면 된다. 자사 문서작성기 프로그램인 'MS 워드97'을 사용할 때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뉴스서비스인 시넷뉴스에 따르면 윈도98에서 'MS 워드97'로 문서작업 중 '자동수정기능'을 이용할

때 마우스를 더블클릭하면 프로그램의 작동이 멈추거나 데이터가 사라지는 결함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워드97 작업중 문장에 단어나 문구를 삽입한 뒤 이를 저장하기 위해 마우스를 더블클릭하면 워드97의 작동이 멈추거나 저장하지 않은 데이터가 지워져 버린다는 것이다. 시넷뉴스는 또 MS가 윈도우98 출시 전 그들의 웹사이트에 이 결함 발생 가능성을 공표했으나 아직 수정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이 결함은 윈도우95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윈도우98에서만 발생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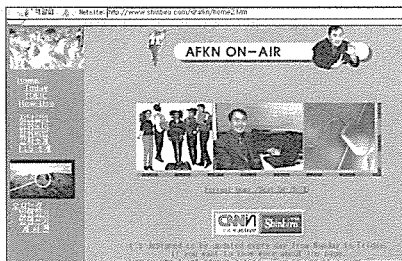
이에 대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는 “한글 MS 워드97은 자동수정기능을 이용할 때 저장과정을 더블클릭 대신 ‘확인’ 버튼을 누르게 했기 때문에 이 결함 발생 가능성은 적다”며 “본사가 조만간 수정프로그램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장 최근에는 밀레니엄 버그와 흡사한 오류가 발견됐다. 역시 시넷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윈도우98이 장착된 PC를 오후 11시 59분부터 자정 사이에 재시동할 경우 PC의 날짜가 이틀 뒤나 하루 전으로 바뀌는 날짜표기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은행권에서 윈도우98을 이용하다 이런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자계산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 금융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영국의 밀레니엄 버그 전문기업인 ‘프루브잇2000’은 또 매년 12월 31일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오류가 자동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MS측은 “날짜표기 오류는 중앙처리장치와 하드디스크가 맞지 않을 경우 일어나는 것으로 확률은

500만분의 1”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인터넷 업데이트 사이트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수정파일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윈도98을 겨냥한 컴퓨터바이러스도 발견됐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지 ‘바이러스 불레틴’(Virus Bulletin)지는 최근호에서 윈도98에 영향을 미치는 ‘HPS’라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등장했다고 밝혔다. 이 바이러스는 토요일에 윈도98을 작동시키면, 그림 파일의 일종인 ‘Bitmap’ 중에서 압축시키지 않은 파일만 골라 파손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이버 영어강좌 인기



▲ ‘박진우의 사이버 어학원’의 홈페이지 모습.

학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사이버 어학강좌’가 학원비도 아끼면서 어학실력도 늘리려는 ‘IMF’ 네티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이버 영어강좌는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 별도의 교재없이 실시간으로 CNN, AFKN 방송 등을 시청하면서 어휘청취, 회화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또 강의내용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반복학습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송강흠

AFKN’(www.songafkn.com). 영어강사인 송강흠씨가 작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해 하루 평균 1천명 이상이 접속하는 인기 사이트다. 매일 주요 뉴스의 영어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게재하고 단어 및 속어도 정리해 제공한다. 현대정보기술의 신비로가 제공하는 ‘박진우의 사이버 AFKN’(www.shinbiro.com/@afkn)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루 이용자는 1천2백여명. AFKN과 CNN 뉴스청취와 원문독해, 해설강의 등으로 꾸며지며 하루 전날 방송내용을 자세한 해설을 곁들여 제공하기 때문에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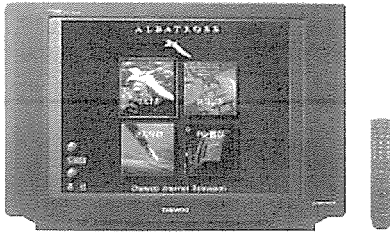
외국어대 동시통역대학원 출신의 전, 현직 통역사들이 만드는 ‘네오퀘스트’(www.neoqst.com)는 영어교육을 오락과 연계한 신개념의 영어학습 사이트. 생활영어 강좌를 비롯 ‘팝송과 영화’, ‘코리아 타임스 해설’, ‘미국 속어’, ‘발음을 고치자’ 등 20여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익훈어학원’(www.ike.co.kr)은 국내 최초로 강사들이 실명제로 수강생들과 전자우편을 주고 받는 사이버 강의로 유명하다. 또 매주 영어 퍼즐, 스크린 영어 등을 올리는 외에도 주체별 AP 5분뉴스, 영어 클리닉 등 다양한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버추얼 스터디센터’(www.vstudy.co.kr)와 ‘인터넷영어학원 VEN’(www.edunet.co.kr)은 각각 토플, 토익, GRE 등 입사 및 유학시험에 필요한 영어를 집중 지도하는 사이트로 유명하다. ‘만화로 배우는 고급영어’(www.unitedmedia.

com/comics)는 신문이나 잡지에 등장하는 만화를 모아놓은 사이트로 고급영어를 익히려는 사람들이 주로 찾고 있다.

지능형 TV 내년 7월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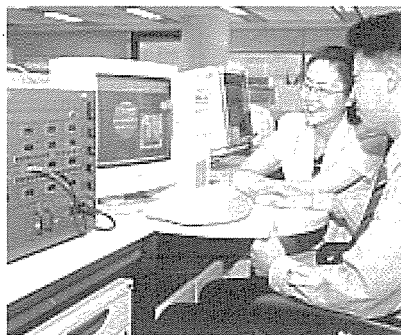
▲ TV와 PC기능이 합쳐진 '지능형 TV'가 내년 7월 첫 선을 보인다. 지능형 TV의 모델이 될 대우전자 '인터넷 TV.'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도 TV를 이용, 쉽게 인터넷과 전자우편, PC통신, 홈쇼핑 등을 할 수 있는 쌍방향 '인텔리전트(지능형) TV'가 내년 7월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보대국 기반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TV' 개발을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대우전자 등 가전 3사와 관련제품 표준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능형 TV란 기존 TV처럼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각종 데이터의 수신, 방송프로그램 안내, 일기예보 등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순한 문서작성과 계산 및 자료관리, 게임기능, 인터넷검색, 전자우편 및 PC통신 주고받기, 홈쇼핑, 홈뱅킹, 전자상거래, 원격게임 등 PC기능도 상당수 가지고 있는 제품. 현재 예상가격이 대당 50만원선(모니터 20인치기준)으로 기존 PC나 인터넷 TV보다 싸다.

가전 3사는 우선 현재 기술로 개발

이 가능한 지능형 TV(1단계)를 내년 7월부터 본격 양산하고 보다 성능이 개선된 고속형 지능형 TV(2단계)는 2000년 7월부터 생산할 계획이다. 가전업계는 일반 가정에서 이 제품을 전화에 연결하면 기존 PC에서 사용하는 간편한 기능과 인터넷을 손쉽게 이용하게 돼 지능형 TV가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PC업계에서는 지능형 TV가 가진 PC기능이 한계가 있는데다, 지능형 TV용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지 못하면 실패로 돌아갈 위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통부는 정보대국 시범사업을 통해 과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지능형 TV의 수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터넷, 우울증 심화



▲ 인터넷을 일주일에 몇시간만 사용해도 우울증과 고독감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용자가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다.

인터넷이 우울증과 고독감을 심화시킨다고 뉴욕 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카네기-멜런대학의 사회심리학 교수 로버트 크라우트박사의 조사분석 보고서를 인용, 인터넷은 일주일에 단 몇시간을 하더라도 우울증과 고독감을 심화시킨다고 전했다. 크라우트박사는 피츠버그에 있는 4개

대학교 학생들과 지역단체 회원 1백 69명을 대상으로 1년 또는 2년에 걸쳐 집에서의 인터넷 사용이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 심리적인 행복감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크라우트박사는 자신도 이 결과에 놀랐다고 말하고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직관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과는 극단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조사대상자들은 평범한 성인들이다. 만약 이들이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더욱 나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크라우트박사는 지적했다. 크라우트박사는 "일주일에 인터넷을 1시간 사용하는 경우 우울증 강도(최고 3)는 평균 1이 올라가고 사귀는 사람들의 수(평균 66명)는 2.7명이 줄어들며 고독감 지수(최고 5)는 10분의 4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크라우트박사는 또 "얼굴을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전자우편을 통해 유지되는 사이버관계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행복감의 형성에 필요한 상호의지와 따뜻한 정을 주지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에 대해 이 조사분석을 시행한 사회과학자들 뿐 아니라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 애플컴퓨터, 인텔, 휴렛패커드 등 첨단 기술회사들도 의외라면서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크라우트박사의 이 조사분석 결과가 첨단기술이 가져다 주는 이익과 이에 관한 대중정책 수립을 둘러싸고 대규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①